

노사상생이 지역발전 원동력

8일 토요일 상생프로그램

대화로 한발씩 후진... 생산성은 전진

2005, 2006년 순이익 12조엔을 넘어섰고, GM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의 반열에 오른 일본의 토요타.

그 성공은 노사관계의 유연성, 자동화 등으로 대표되는 토요타 생산방식(TPS)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창업 이래 수많은 경영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오면서 토요타에 자연스럽게 체화된 '노사신뢰', '위기의식'이 근본적 바탕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1950년대 초 토요타는 불황의 여파로 1천500여명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75일간 계속된 노조의 파업으로 창업자인 기이치로 사장이 퇴진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를 통해 토요타는 회사의 비전과 노사공동 성장을 위해 진지한 대화와

1950년대 초 창업자 퇴진 아픔 딛고 55년 무파업

노사 서로 존중... 일하는 보람 느끼게 환경 개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1967년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근로조건 개선에 추구할 것"을 천명했다.

토요타의 임직원들은 이런 초창기의 노사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노사는 '한축의 두바퀴'와 같이 서로 조화롭게 맞춰갈 때 전진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됐으며, 이는 55년 무파업과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토요타에 노사분규가 사라지지 않을 해로 반세기 가 넘었다. 55년간 노사

분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춘투(春闘)기에 접어들면 일본의 자동차메이커인 토요타 또한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교섭의 쟁점은 'base up'이라고 일컬어지는 총인급 추가인상률이다. 지난 2002, 2003년의 경우는 불경기로 인해 사측에서 연속 0%를 제시했고, 근로자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임금인상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근로자들은 사측에 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사측이 내세우는 구호는 의외로 상투적이다. 근로자들이 공장

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측면에서 공조(공장내 공기)의 환탁수준 확대, 사무원의 개인 사무공간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고안됐는데 같은 노력에 대해 근로자들은 흔쾌히 받아들인다. 토요타 노사간 상호신뢰의 깊이를窺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호타이어가 21일 노사간 잠정합의를 통해 '하루'를 접었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가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출증가, 재고감소, 경영실적 개선, 근로조건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달성해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광주은행 - 기아자동차 공동협력 조인식

2007. 6. 21



"힘모아 광주경제 살립니다" 조남호 기아자동차 사장(오른쪽 두번째)과 정태석 광주은행장(세번째)이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조인식'을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기아차와 광주은행은 조인식을 계기로 광주비지카드를 기아차 구입시 마일리지 2배 적립 및 '오토론' 제공 등 다양한 공동마케팅을 펴기로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재건축·재개발 절차 바뀐다

정비구역 지정 뒤 추진위 구성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진다.

또 정비구역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구성→정비구역지정→추진위승인→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로 이어지는 절차가 '정비

기본계획수립→예비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구성(승인)→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로 변경된다.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추는 것은 추진위 존속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며 예비안전진단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구성보다 앞당긴 것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추진위 구성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가 시공사 등과 유착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 설립 동시에 운영기본경비 납부가 의무화된다. /연필뉴스

장순호 前지역중기청장

가스 기술공 사장 내정

장순호 전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55)이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내정됐다.

지난 93년 한국가스공사가 철거해 설립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예방점검·정비 등 '국민연료화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를 나온 장 사장은 21회 행정고시를 거쳐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전기소비자보호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 사장은 광주·전남중기청장 재임 시절 혁신기술개발사업 및 여성기업 육성, 수출 활성화 지원, 장애인 기업 경쟁력 향상 등에 크게 기여했다.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지역중기 간담회 참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광주를 방문, 샌드러플 광호텔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함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중소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광주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 현안 애로사항 청취 등이 마련된다. /이종태기자 jtleee@

한국은행 돈줄 조인다

과잉 유동성 흡수... 총액대출한도 감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4분기 총액대출한도를 2분기보다 1조5천억원 줄여 6조5천억원으로 설정키로 21일 의결했다.

한은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돼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총액대출한도의 지

원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8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시장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대출한도는 올해 1분기에 9조6천

억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됐으며 다시 6개월만에 1조5천억원이 축소된다. 한은은 금융기관별 한도를 3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감축하지만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9천억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천억원의 유보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화랑·산후조리원 세무조사

자영업자 315명 탈세

2,147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웨딩 관련업자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으로부터 2천14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동시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한 유흥업소와 월 이용료가 1천만원 넘는 고

급 산후조리원, 고가미술품을 취급하는 대형화랑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씩 모두 2천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금이 추징된 자영업자들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료업종 등 전

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나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나 의류, 고가소비재와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임대, 주택·상가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 315명이다.

이들은 1인당 1년간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 5억6천만원을 신고누락한 셈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현금거래의 특성상 세금탈루가 쉬운 유흥업, 웨딩업, 사우나, 음식점,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연필뉴스

납세 증명서 등 10종

모범납세자 표기 혜택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이 국세청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임을 표기할 민원증명서를 20일부터 발행,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나섰다.

표기대상자는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80명으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표기

하도록 돼있다. 표기대상 증명서는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등 10종류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교중 한교 전화영어. 기존 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인한 영어 실력을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주기 위해 한교와우텔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영어개발기관과 함께 최상의 방법을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가시적인 성과와 만족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능력 향상의 최선은 1:1 전화영어수업이다" 매일 원어민과 전화대화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영어공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영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화영어 학습법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교전화영어는 고객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원어민 1:1 영어학습법으로 고객의 영어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교전화영어의 장점 | ● 원어민과 1:1 수업, 수업시간동안 지속적인 케어로 학습효율이 높다. ● 일반 학원과 달리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긴 효율적인 영어 학습방법이다. ● 학원으로의 이동시간 절약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수강생의 레벨에 맞는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 ● 교재이외에 레벨별 다양한 Topic 준비, 흥미를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다. ● 우수한 원어민 선생님 확보 및 평가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 ● 영어회화, TOEFL, TOEIC, IELTS 등 다양한 종류의 강좌가 있다. ● 현지직영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수강비용 체계.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05.com 영업사원 모집 문 의 : 062-526-0509 011-9222-4562

이태리가구 전문점. 1년 딱 한번 7월 19일까지 % Off SALE.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역)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